

30기 해외역사문화탐방

몽골 탐방 후기

장소: 울란바타르, 테를지

학과: 사회복지전공

학번:

이름

● 몽골 해외탐방 일정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일정표
1일 5/27 (수)	인천	OM302	14:20	인천국제공항 출발
	울란 바타르	전용버스	17:00	칭기스칸국제공항 도착
				▶ 문화탐방 - 몽골국립박물관, 칭기스칸 광장
				▶ 교류 - 서울사이버대 교류시간
				호텔 : 라마다 울란바타르 시티센터
2일 5/28 (목)	울란 바타르	전용버스	09:00	호텔 조식
				▶ 공식일정 - 국립과학기술대학교 방문 및 교류
				중식
			14:00	▶ 문화탐방 - 자이승 전망대, 이태준열사 기념공원 및 기념관
				▶ 문화탐방 - 국영백화점 탐장
				석식
				▶ 문화탐방 - 몽골전통 공연관람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 라마다 울란바타르 시티센터
3일 5/29 (금)	울란 바타르	전용버스		호텔 조식
				▶ 문화탐방 - 몽골국립박물관, 칭기스칸 광장
				▶ 문화탐방 - 전신마사지 체험
				테를지로 이동(약 1시간 20분 소요)
				▶ 문화탐방 - 테를지 말타기 체험
	테를지			석식
			20:00	▶ 서울사이버대 마무리 교류시간
				게르 투숙 및 휴식
				호텔 : 테를지 롯지
4일 5/30 (토)	테를지	전용버스		호텔 조식
				▶ 문화탐방 - 거북바위 견학 및 전통 유목민 문화체험
				▶ 문화탐방 - 칭기스칸 기마상
				칭기스칸국제공항으로 이동
		OM307	18:15	칭기스칸국제공항 출발
	인천		22:25	인천국제공항 도착

◎ 몽골 해외탐방 후기

1일차 (5월 27일) - 설렘 가득한 몽골과의 첫 만남

드디어 기다리던 몽골 해외탐방이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함께 탐방을 가는 학우들을 만나니 여행을 간다는 실감이 났다. 비행기를 타고 약 3시간 40분 정도 이동한 뒤 몽골 칭기스칸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나라와는 다른 건조한 공기와 끝없이 펼쳐진 넓은 하늘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아, 정말 몽골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울란바토르 시내로 이동한 후 몽골국립박물관을 방문했다. 박물관에는 몽골의 역사와 전통문화, 유목민들의 생활 모습이 잘 전시되어 있었다. 평소에는 잘 몰랐던 몽골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특히 칭기스칸과 관련된 유물들을 보면서 몽골 사람들이 왜 그를 존경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칭기스칸 광장에 갔다. 사진으로만 보던 곳을 직접 보니 생각보다 훨씬 넓고 웅장했다. 광장에 서 있으니 주변 건물들과 넓은 공간이 어우러져 몽골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학우들과 사진도 찍고 주변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우들과 몽골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교류 시간이 있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분위기가 좋아졌다. 서로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탐방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날 일정이 끝나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솔직히 많이 피곤했다. 하지만 처음 보는 몽골의 풍경과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이번 여행에서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첫날을 마무리했다.



2일차 (5월 28일) -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다

둘째 날은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다. 학교에 도착하니 관계자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캠퍼스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생각보다 학교 규모가 커서 놀랐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한국과 몽골의 교육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로 사용하는 언어나 문화는 달랐지만 학생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금방 친근하게 느껴졌다.

오후에는 자이승 전망대에 올라갔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정상에 도착해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멋있었다. 울란바토르 시내가 한눈에 보였고 도시 뒤로 넓게 펼쳐진 초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라 사진도 많이 찍었다. 몽골의 넓은 땅과 탁 트인 자연을 보면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다음으로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과 기념관을 방문했다. 사실 방문하기 전에는 이태준 열사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몽골에서 의료활동과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낯선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습이 존경스러웠고, 한국과 몽골이 생각보다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후에는 국영백화점을 둘러보았다. 현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기념품도 구경하고 간식도 사 먹으면서 몽골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다른 점도 많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다.

저녁에는 몽골 전통 공연을 관람했다. 화려한 전통 의상과 춤도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허미 공연이었다. 한 사람이 여러 소리를 동시에 내는 것처럼 들려서 처음에는 정말 신기했다. 영상으로 볼 때와 직접 듣는 것은 느낌이 전혀 달랐다. 몽골의 전통문화를 눈앞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고, 몽골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3일차 (5월 29일) - 초원에서 만난 진짜 몽골

셋째 날에는 몽골국립박물관과 칭기스칸 광장을 다시 둘러보았다. 처음 왔을 때는 정신없이 구경하느라 놓친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볼 수 있었다. 여기저기 사진도 찍고 기념품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후에는 전신마사지를 받았는데 며칠 동안 이동하느라 피곤했던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아서 좋았다.

오후에는 테를지로 이동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지는 게 보였다. 건물들은 사라지고 초원과 산만 보이기 시작했는데 진짜 몽골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라 신기했고 계속 창밖만 보게 됐다.

테를지에서는 말타기 체험을 했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다. 말이 생각보다 크고 높아서 괜히 긴장도 됐다. 그런데 막상 타고 나니 재미있었고 초원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보는 풍경이 정말 좋았다. 바람도 시원했고 주변에 보이는 풍경이 전부 그림 같았다. 개인적으로 이번 몽골 탐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였다.

저녁에는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교류 시간을 가졌다. 며칠 동안 같이 다니다 보니 처음의 어색함은 없어지고 다들 친해져 있었다.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벌써 마지막 밤이라는 게 아쉬웠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4일차 (5월 30일) - 아쉬움을 안고 돌아오다

벌써 몽골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아침에는 거북바위를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신기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바위라고 하는데 정말 거북이처럼 보여서 다들 사진도 많이 찍었다. 주변 풍경도 너무 넓고 탁 트여 있어서 마지막까지 몽골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다음에는 유목민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게르 안에도 들어가 보고 설명도 들었는데 우리나라와는 생활 방식이 정말 많이 달랐다. 화려하거나 편리한 생활은 아니지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직접 와서 보니 책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였다.

이후에는 칭기스칸 기마상을 방문했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엄청 컸다. 가까이에서 보니 더 웅장했고 몽골 사람들이 왜 칭기스칸을 존경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몽골에 와서 여러 곳을 둘러보며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이동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출발할 때는 3박 4일이 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정말 순식간이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웠고 웃을 일도 많았다. 몽골의 역사와 문화도 기억에 남지만 함께한 학우들과의 추억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번 해외탐방은 나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새로운 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고 평소에는 쉽게 할 수 없는 경험도 많이 했다. 그리고 몽골에 다녀오니 우리나라가 정말 편리하고 좋은 나라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